

한국판런던
인스티튜트를
꿈꾸다

출판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출판교육 환경을 이야기 할 때면 빠지지 않고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한국에도 런던 인스티튜트(The London Institute)와 같은 전문교육기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 런던 인스티튜트는 유명한 5개의 미술 및 디자인 대학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국의 국립예술대학이다. 그 중에서도 인쇄·출판 교육을 맡고 있는 프린팅 대학(London College of Printing)은 세계 제일의 기술 및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뜻있는 출판사들이 힘을 모아 고급 출판 인력 수급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부설 서울북인스티튜트(Seoul Book Institute : 이하 sbi)가 바로 그곳이다.

풍부한 현장 경험 갖춘 43명의 강사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이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sbi는 오는 5월 2일이면 설립된 지 정확히 2년이 된다. 역사를 따지자면 이제 갓 걸음마를

멘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무려 1400명이 넘는 교육생을 배출해 냈다. 12개의 정규과정과 1개의 특별 강좌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제9기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이 한창 진행중이다.

‘출판 고급 인력 수급과 재직자 교육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출발한 sbi. 이곳의 강점은 뛰니뛰니 해도 현직 출판사 대표, 임원급으로 구성된 43명의 막강한 강사진이다. 모두 최소한 1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출판업계의 베테랑들이다. 교재 또한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7종을 자체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수업이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들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시설면에 있어서도 sbi는 감히 국내 최고 수준이라 할 만 하다. 1200여 권이 비치되어 있는 도서관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출판선진국에서 발간된 자료로 가득 차 있다. 이밖에도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강의실과 30명 규모의 중강의실,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강의실 등에는 편집·교열에 필요한 최신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sbi는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는 물론 이 분야의 진출을 꿈꾸는 예비출판인들에게도 문을 열어 놓고 있다. 특히 편집자 입문 과정을 통해 책임교수가 출판사에 취업을 추천해 주는 취업연계 시스템은 구직자 입장에서 가장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교육사업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노승현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 팀장은 “강좌마다 정원이 틀리지만 보통 40명이 정원일 경우 이 가운데 구직자는 10~15명 정도”라며 “진학이나 자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회원사 교육생 비중 점차 증가

2005년 455명으로 시작한 sbi는 이듬해인 2006년에는 637명으로 교육인원이 40%나 증가했다. 불과 1년 만에 그 명성이 입소문을 타고 무섭게 퍼졌기 때문. 수강생

들의 수업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생 중복 수강생 비중이 2005년 6.5%에서 2006년에는 10%로 늘었다는 점. 교육을 받은 수강생이 다시 다른 강좌를 신청했다는 의미다.

한국출판인회의 비회원사 교육생의 비중도 늘었다. 2005년에 74%였던 것이 2006년에는 81%로 뛰어오르는 등 짧은 시간안에 범 출판계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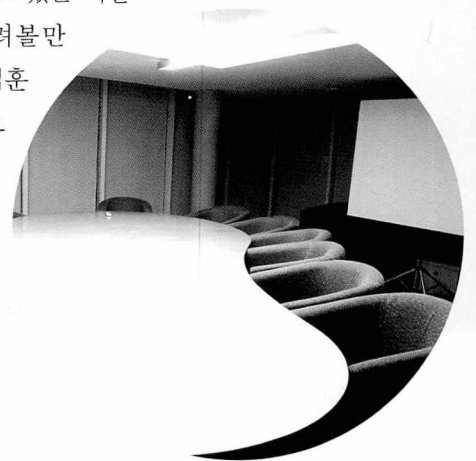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강생 모집 공고가 나가기가 무섭게 마감이 되는 것은 이제 놀랄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월 20일 공고를 낸 제9기 수강생 모집 안내는 3월 첫 췌 주에만 5개의 강좌가 마감됐다.

sbi는 유료제로 운영된다. 강좌에 따라 적게는 39만원에서 많게는 79만원까지 차별적이다. 수강생으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강 지원금 제도를 통해 자비로 수강한 근로자는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수강료의 30~4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한국출판인회의 회원사 직원이거나 sbi 수강생이 추가 혹은 재수강을 하는 경우는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강등록은 수강료 납부 순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결제가 늦으면 수강 신청을 했어도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자랑 서울출판예비학교

경제적 여건이 안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sbi 교육 과정을 수강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이라면 역시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출판예비학교를 노려볼만 하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 교육 과정은 전액 무료이





며 수강생에게는 소정의 교육 수당도 지원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sbi에 비해 심사 과정이 까다롭고 모집 횟수도 1년에 두 번 뿐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진행된 1차년도 사업 결과 신규인력 양성훈련과정 총 26명이 6개월간 725시간의 교육을 받았고, 이 가운데 2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한편 재직자 직무향상 훈련 과정에서는 52명의 현직 출판인들이 교육을 수료했다. 현재 지난 1월 29일부터 제2기 교육이 진행 중이다.

제2기 교육은 오는 6월 29일까지 5개월간(매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주5일, 총 700시간) 실시된다. 이론 강의와 제작 실습이 병행되는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은 실제 출판물 1종, 지도교수와 함께 작성하는 개인별 자기평가서, 개인별 특화 과제 등 최소 세 가지 결과물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컨소시엄 회원사를 대

상으로 취업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예비출판학교 수업은 8명의 교수가 담임을 맡아 철저한 1:1 지도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 교육생들은 모든 과정이 끝나는 7월 초부터 취업이 가능하며, 5월 말까지 출판사의 채용 의사를 접수해서 6월 중에 면접을 치르는 등 채용 절차를 거쳐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수강하려면 4차례의 전형 과정 통과해야

제2기 서울출판예비학교의 경쟁률은 무려 14:1. 345명의 응시자 가운데 24명만이 신규인력 양성훈련 과정에 합격했다. sbi에 비해 서울출판예비학교는 전형 과정이 까다롭고 엄격하다. 국어, 논술, 면접, 심층면접에 이르는 무려 4차례의 전형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 특히 심층면접에서는 응시자들이 출판인으로서의 마인드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둔다. 교육기간에 중도 탈락자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노승현 팀장은 “서울예비출판학교는 노동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간에 결원이 발생하면 그 기수 과정이 끝날 때까지 인원 보충이 불가능하다”며 “작년에도 29명 중 3명이 중도탈락, 26명이 교육을 마쳤다”고 말했다. “결원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라는게 노팀장의 설명이다.

서울출판예비학교는 강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인다. 교수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갖는다. 이 때 각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조금이라도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잠시 강좌를 멈추고 보강을 한 후 다시 진행한다. 교육생들에 대한 설문도 수시로 실시, 다음 교재 편집에 반영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명실상부한 출판 전문 교육기관 자리잡은 sbi와 서울출판예비학교.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두 교육기관이 거둔 성공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노력이 숨어 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